

티맵-우버 ‘모빌리티 공룡’ 출격… “카카오 독주 막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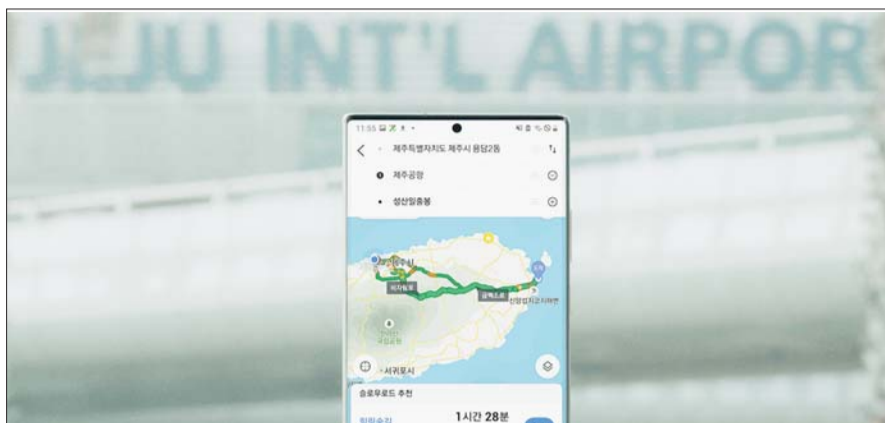
기업 첫글자만 합작 ‘우티’ 출범
첫 사업 도전장은 택시 호출시장
자금 경쟁력 갖춰… 투자경쟁 예고

세계 최대 차량 공유업체 우버(Uber)와 SK텔레콤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의 합작법인 ‘우티(UT)’가 출범하면서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격동이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우티의 막강한 자금력과 혁신적인 서비스가 ‘카카오’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맵모빌리티와 우버의 합작법인(JV)인 우티가 이날 출범했다. 우티는 우버와 티맵모빌리티 기업명의 첫 글자를 따서 지었다.

우티의 최고경영자(CEO)는 톰 화이트(Tom White) 우버 한국 총괄이 내정됐다. 톰 화이트 최고경영자는 2015년 우버에 입사해 호주, 베트남, 일본, 한국 등에서 사업을 맡으며 우버의 글로벌 성장을 주도했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SK 출신의 오명훈 총괄이 수행한다. 오명훈 CF



‘티맵’의 슬로우로드 이미지.

/티맵모빌리티

O는 2001년 SK 그룹에 입사해 SK텔레콤 및 SK홀딩스에서 IR, 글로벌 M&A 수행, 터키지사장 등을 역임한 글로벌 재무 전문가다.

우티는 올해 중순 우버 택시와 티맵 택시를 통합한 새로운 서비스와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합리적인 운임 체계, 승객과 기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 등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계획 중이다.

통합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과 동일하게 우버와 티맵모빌리티가 제공

중인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곳은 택시 시장이다. 현재 택시 시장은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수익화를 위해 택시 운전자들을 상대로 편리하게 호출을 받고 있는 월 9만9000원의 유료 멤버십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단체들은 사실상 호출 서비스가 유료화 된 것이 아니냐

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빈틈을 노리고 우티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모빌리티의 판도가 바뀌지 않겠냐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다. 올 초 가맹 택시 사업을 시작한 우버는 현재 수도권에서 약 1000대의 가맹 택시를 보유하고 있다.

우티의 강점은 자금력과 탄탄한 인프라가 꼽힌다. 티맵은 월간 사용자 수 1300만명에 달하는 국내 1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시장 점유율이 75%에 달한다. 우버는 명실상부하는 모빌리티 강자인 글로벌 기업으로 전세계 900여 개 도시에서 공유차량을 운영하며 노후를 쌓아왔다.

자금력도 탄탄하다. 우버는 티맵모빌리티에 5000만달러(약 560억원)를 투자한 데 이어 우티에도 약 1억달러(약 1100억원) 이상을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티맵모빌리티는 사모펀드(PEF)인 어펠마캐피탈과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로부터 3000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톰 화이트 최고경영자는 “우버의 타

월한 기술력과 글로벌 전문성이 티맵모빌리티가 보유한 드라이버, 뛰어난 맵핑 서비스로 구성된 네트워크와 결합한다면 우티는 국내에서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와 혁신을 승객과 드라이버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향후 모빌리티 시장에 ‘편의 전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티가 출범한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글로벌 투자사인 칼라 일그룹으로부터 2억달러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구글로부터 투자 유치 소식을 알리며 맞불을 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구글로부터 5000만달러(56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구글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신주 97만848주를 인수해 지분율 1.69%를 보유하게 됐다.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 혁신과 시장 성장에 기여할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우선 과제로 협력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 사업자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편의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알뜰폰 5G요금제 더 싸진다… 4950원부터

알뜰폰사업자 첫 독자 요금제 선포
가장 저렴한 4950원, 1.5GB 데이터
4만4000원은 30GB 데이터 제공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르면 이달부터 다양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선보인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 10곳은 월 4000원대 1.5기가바이트(GB)부터 월 4만4000원대 30GB까지 5G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체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들이 선보이는 요금제는 최소 4950원부터 최대 4만4000원대까지 구성된다. 알뜰폰 업체가 5G에서 독자적으로 요금제를 설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5G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5G 중저가 요금

제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4월~5월께 출시될 독자적인 알뜰폰 5G 요금제는 월 4950원 1.5GB 데이터 제공요금제부터 월 2만2000원에 7.5GB, 월 4만4000원 30GB를 제공하는 소량 구간 요금제와 중량 구간 요금제로 구성됐다. 이달 중에는 스마텔, 큰사람, 프리텔레콤이, 내달에는 국민은행, 세종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등이 5G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 계열인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헬로비전, SK텔링크는 7월 출시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110GB 이상의 5G 요금제를 소매요금 대비 60~63% 대가 수준으로 도매제공토록 해 알뜰폰 5G 요금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

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올 2·4분기부터 이동통신사의 12~150GB 구간 요금제 상품을 알뜰폰에 신규 도매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를 구성할 때 데이터 일정량을 미리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할인하는 데이터 선구매 적용구간을 세분화 해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중소사업자나 데이터 전용 IoT 사업자도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과 관측활동비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종합포털 ‘알뜰폰허브’에 5G 요금제와 제휴카드 혜택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국내 첫 ‘디지털헬스 패스’ KT가 만든다

인천국제공항·인하대병원과 협력
코로나 검사결과, 백신접종인증 등

KT는 인천국제공항, 인하대병원과 협력해 국내 최초 ‘디지털헬스 패스’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KT가 쌓아 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방역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안전한 해외 출입국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날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3시간 업무협약식에는 KT 구현모 대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인하대의과대학부속병원 김영모 원장을 비롯한 각사 주요관계자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왼쪽부터)KT 구현모 대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인하대병원 김영모 원장의 모습. /KT

3사는 ▲공항 내 ICT 기반 방역 프로세스 도입 및 정책 수립 협력 ▲안전한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구축 사업 협력 ▲해외 출입국 조기 정상화를 위한 ‘트래블

버블(방역 우수 국가 간 자유로운 여행 허용) 활성화 및 글로벌 사업 확장에 앞장서기로 합의했다.

‘디지털헬스 패스’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가간 이동이 차단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 출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코로나19 검사결과·백신접종인증 플랫폼이다.

출국 전 지정된 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부여 받게 되면 자동으로 앱으로 검사결과가 연동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헬스 패스를 발급받아 출국 시 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검사뿐만 아니라 국가별 입국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전자화하고, 향후 백신 접종 데이터는 물론 국내외에서 도입 검토 중인 백신인증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범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지난달 31일 삼척시청 앞 광장에서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지하는 삼척시민 60여 명이 삼척화력발전소 항만공사 재개 촉구 집회를 열고 외부 세력의 여론 왜곡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삼척지역 주민들이 삼척화력발전소 항만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삼척시청 앞 광장에서 삼척화력발전소 항만공사 재개 촉구 집회를 열고 외부 세력의 여론 왜곡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집회에 참가한 삼척시민들은 삼척항만1리현안대책위원회, 블루파워 현안대책위원회, 삼척발전 청년위원회, 삼척시레미콘협회, 한국노총 강원본부 삼척지부, 삼척시 중장비협회 등의 회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삼척화력발전소는 어려운 삼척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삼척 시민

96.8%가 찬성해 유치한 사업이다”라며 “환경단체 등 일부 외부세력이 거짓 여론을 조장하며 삼척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삼척경제에 삼척화력발전소 항만공사 중단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했다. 삼척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며 “이러한 삼척 시민들의 정당한 외침을 외면하면 삼척시 및 관계기관은 앞으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외부 세력의 주장인 이번 공사 때문에 해안침식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맹방해안 침식은 2010년부터 심각했음을 그 당시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도요타, 봄 맞이 차량 살균소독 등 서비스

도요타코리아가봄맞이 서비스 캠페인을 개시한다.

도요타는 오는 30일까지 ‘2021 토요일 스프링 홈커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24개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김재용 기자 juk@

차량 살균 소독 서비스와 휴대용 소독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캐빈 에어 필터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에어 케어 서비스 ▲와이퍼 러버 및 블레이드 ▲엔진 플러시 첨가제 ▲타이어 등에 대해서는 부품 가격 및 공임에 대하여 15% 할인 혜택을 준다.